

Aspergillus 가 2예에서 각각 발견되었다.

4) 적절한 치료로는 신속한 진단과 적합한 항생제의 조기투여 및 면역 억제제의 감소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인균을 동정하기 전에 항생제 요법이 요할 때는 3세대 Cephalosporin 과 aminoglycoside 의 병합요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 43 -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지속성 북막투석 및 혈액투석이 자율신경계 기능이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의대 내과

주현영 · 구철희 · 하성규

이호영 · 한대석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흔히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에도 불구하고 임상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비관혈적이고 비교적 검사하기 쉬운 valsava maneuver, 와위시와 기립시의 혈압 반응, 30 : 15 ratio, Hand grip exercise test 등을 시행하여 자율신경계 기능이상 의 정도를 관찰하였고 지속성 북막투석 및 혈액투석 치료가 이러한 자율신경계 기능이상을 호전시키는 지 유무를 정상대조군 12예와 비교 관찰하여 다음의 성적을 얻었다.

1) valsava maneuver 직후의 최장 R-R interval 과 최단 R-R interval 비로 구한 valsava ratio 는 정상대조군에서 1.81±0.10 혈액투석 치료군에서 1.47±0.07, 지속성 북막투석치료군에서 1.38±1.10, 투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 1.31±0.07로 만성신부전증 환자군은 모두 정상대조군보다 유의있게 valsava ratio 가 낮았으나(p<0.05), 환자군 상호간의 차이는 없었다.

2) 와위시와 기립시의 혈압의 변화에서 수축기 혈압의 변화는 대조군에서 6.6±4.4 mmHg, 혈액투석치료군에서 -2.2±1.9 mmHg, 지속성 북막투석치료군에서 -7.3±4.5 mmHg, 투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 -18.3±13.5 mmHg 로 투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이 대조군 및 투석치료군보다 현저하게 낮았다(p<0.05). 이완기 혈압의 변화는 대조군에서 17.2±2.5 mmHg,

혈액투석치료군에서 6.0±2.9 mmHg, 지속성 북막투석 치료군에서 -2.4±1.6 mmHg, 투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 3.3±5.2 mmHg 로 대조군보다 낮았으며 환자군 상호간의 차이는 없었다.

3) Hand grip exercise 후의 혈압 변화를 보면 수축기 혈압의 변화는 대조군에서 49.7±5.0 mmHg, 혈액투석 치료군에서 42.2±6.7 mmHg, 지속성 북막투석 치료군에서 39.4±6.7 mmHg, 투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 28.3±13.9 mmHg 로 각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완기 혈압의 변화는 대조군에서 43.4±3.9 mmHg, 혈액투석치료군에서 41.9±6.4 mmHg, 지속성 북막투석치료군에서 28.0±2.8 mmHg, 투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 18.7±13.0 mmHg 로 대조군과 투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 외에 각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30 : 15 ratio 는 대조군에서 1.02±0.04, 혈액투석치료군에서 0.97±0.03, 지속성 북막투석 치료군에서 0.95±0.03, 투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 1.03±0.02로 각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44 -

腎症候群에 合併된 動脈血栓症 4例

서울醫大 內科

金允禧 · 朴壽吉 · 安奎里

韓鎮錫 · 金聖權 · 李正相

腎症候群에서 血栓症은 중요한 合併症의 하나로서 靜脈血栓症은 상당수 보고되었으나 動脈血栓症은 매우 드물어 세계적으로 30여例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動脈血栓症의 호발부위는 大腿動脈, 腎動脈, 大動脈등이며 발생기전은 靜脈血栓症에서의 마찬가지로 過凝固 상태가 주로 관여하며, 利尿劑 投與에 의한 血液量減少, 스테로이드 投與, 血清脂肪의 增加, 血管穿刺 및 外傷등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많은 논란이 있다.

연구자들은 1979년 1월부터 1986년 3월까지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했던 腎症候群患者 360명에서 臨床經過中 動脈血栓이 合併되었던 4例(0.9%)를 經驗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男子 3名, 女子 1名이었고, 나이는 각각 49세, 27세, 17세, 17세이었다.

2) 血栓症 發生까지의 腎症候群 有病期間은 5個月에서 15個月 사이였다.

3) 病理組織學的 진단은 膜性絲絨體腎炎 1例, 最小

病變 3例이었다.

4) 血管發生部位로는 大動脈, 大腿動脈, 腎動脈과 膝窩部動脈, 腦動脈 등이었다.

5) 4患者 모두 스테로이드 및 利尿劑가 投與되었었고 血清 콜레스테롤치는 500 mg/dl 以上이었으며, 大腿血管 穿刺에 의한 大動脈 血栓症을 보인 患者 1例을 제외하고는 모두 血清 알부민치가 2.0 g/dl 以下였다.

6) 4例中 2例은 血栓除去術 및 抗凝固劑 療法을 並行하였고 2例은 抗凝固劑만으로 治療하였으며 모두 증세의 好轉을 보였다.

이상에서 연자들은 腎症候群 患者에서 合例된 動脈 血栓症 4例을 관찰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45 —

신장이식 15예의 임상적 고찰

고신의대 내과

홍관표 · 김인영 · 양상호

박병규 · 박진석 · 이시래

신장이식은 말기신장질환 환자에서 생활의 질적 향상과 정상생활로의 재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공여자가 있을 경우 말기신부전환자의 가장 좋은 치료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連자들은 1984년 12월부터 1986년 4월까지 고신의대 부속 북음병원에서 시행한 신장이식 15예에서 얻은 임상적 성적을 보고하는 바이다.

수혜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10예, 여자가 5예였고, 연령은 14세에서 51세사이로 30대가 11예로 가장 많았으며, 공여자는 남자가 6예, 여자가 9예였고, 연령은 27세에서 62세까지로 50대가 6예였다. 수혜자의 원인 질환은 14예에서 만성사구체신염, 1예에서 당뇨병성 신질환이었다.

수혜자와 공여자간의 관계는 5예는 형제자매간으로 3예는 HLA 동형, 2예는 1 haplotype 이 같았으며, 8예에서는 공여자가 부모였고, 2예는 부인이 남편에게 공여하였으며, 이 중 1예는 HLA-A 에서 한 항원만 같았고 다른 1예는 모두 같지 않았다.

이식전에 환자는 8예에서는 혈액투석, 7예에서는 CAPD 로 치료를 받았으며, CAPD 환자에서는 이식후 평균 23.5일만에 영구유치 카테터를 제거하였다.

HLA 동형인 3예를 제외한 12예에서는 이식전에 DST 를 시행하였는데, 이들의 이식후 성적은 DST 를 시행한 12예중 10예와 DST 를 하지않은 HLA 동형인 3예,

모두 13예에서 이식신의 기능이 잘 유지되었다.

비혈연자간인 3예에서 DST 를 시행하였는데 DST 만 한 2예중 1예에서는 백혈구 교차 반응이 양성으로 되어 이식을 하지 못하였으나, DST 시작 1주 전부터 azathioprine 을 투여한 1예에서는 백혈구 교차반응이 음성이었다.

면역 억제제로는 azathioprine 과 prednisolone 을 같이 사용한 것이 11예, cyclosporine-A 와 prednisolone 을 같이 사용한 것이 4예였다.

급성 거부 반응이 5예(33.3%)에서 발생하였는데, DST 를 하지않은 HLA 동형인 1예에서는 이식 제11일째에 거부반응이 나타났으며, DST 를 시행한 4예에서의 거부반응은 제 6일, 9일, 12일, 14일째에 각각 발생하였고 평균 10.3일이었다.

합병증으로는 요로감염 3예, 급성 세뇨관성 괴사 2예, 당뇨병 2예, 간염, 신동맥협착, 이식후 신주위 대량출혈, 적혈구 증다증, 혈소판 감소증 및 백혈구 감소증이 각각 1예에서 발생하였다.

요약하면 15예 가운데 HLA-동형 형제간이 아닌 12예(부부간 2예포함) 모두 DST 를 시행하였으며, DST 3주후 직접교차반응이 음성인 예에서의 이식후 결과는 신동맥협착으로 인해 기능상실을 일으킨 1예와 심한 ATN 을 일으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1예를 제외한 10예에서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이식신의 기능이 잘 유지되었다.

— 46 —

렘토스피라 혈청 반응에 양성인 3예

경희의대 신장내과

이현수 · 신동복 · 최학립

권오선 · 임천규 · 김명재

렘토스피라병은 다양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전신감염성 질환으로서 한국형 출혈열과 그 임상증상 및 병의 진행과정이 흡사하며, 혈청학적 검사, 균분리 및 부검소견에 의해 확진이 가능하다.

이에 본 連자들은 렘토스피라 혈청반응에 양성을 보인 3예의 임상상과 검사 소견을 보고하는 바이다.

1) 3예의 연령 분포는 56세에서 63세까지이며 이중 남자가 2예, 여자가 1예이었다.

2) 발생 계절은 11월에서 1월 사이이었다.

3) 임상상은 3예 모두에서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및 림프노가 있었고 2예에서 기침, 객담, 호흡곤란등